

2006 부산광역시 무대지원 사업선정작
2006 사랑티켓 참가작

제 98 회 정기 공연

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

번
되
자
유
형
신
해
탈
원
호
의
무
애
행

삼 매 경




Blissful State of Self-forget-fulness

2006년 11월 14일 ~ 11월 30일

평일 오후 7시30분 / 주말 오후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놀이소극장

● 후원 : BBS 부산불교방송국, 여여선원 ● 협찬 :  영광도서

공연문의 : 051) 852-9161

삼매경

연출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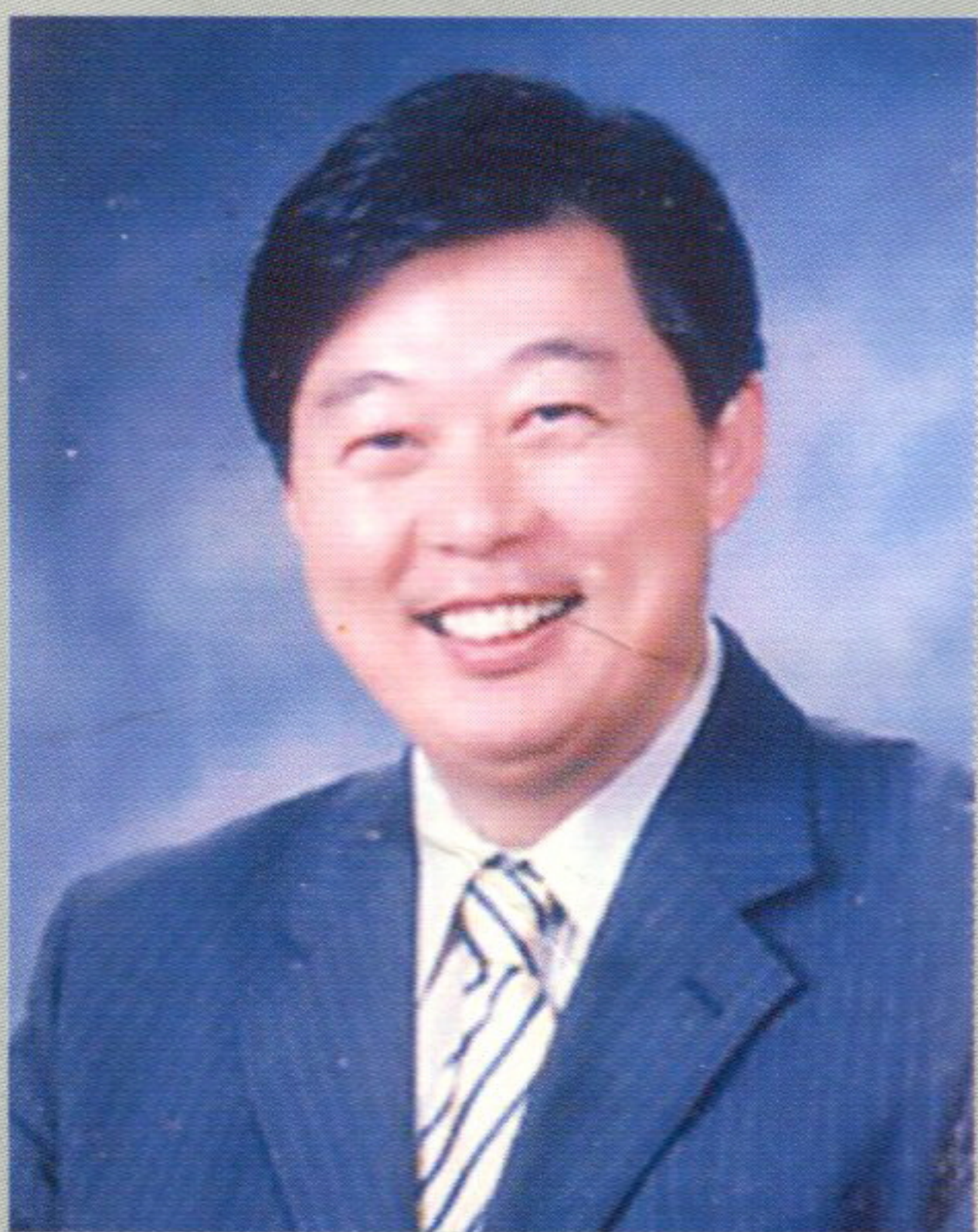


이 기 원

- 원효, 그 너른 바다의 기슭에서 -

원효의 너른 바다에서 허우적이다 보면
보잘 것 없고, 일그러진 지난 세월의 앙금에
애꿎은 담배연기만 피워 올리게 된다.
향을 사루면 제 몸을 태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건만,
니코틴 훑는 내 입술은, 해 마다 찾아오는 시월의 아픔과
원효를 연출함이 두 번째 이언만, 그 무게에 부러 터지고 만다.
망상으로 화끈거리는 머리는 얼마나 더 차가워져야 하고,
삿된 탐.진.치로 메말라 버린 가슴은
어떤 구원의 손길이 있어 용광로처럼 뜨거워 질 것인가?
작고 작아져 마침내 텅 비어 버리는 그 자리가
무애행! 그 넉넉한 자유의 바다로 향한 초발심의 단초가 된다면
그 이상의 위안은 없으리라.
무엄하게도 원효를 찢고 비틀어 그 진수 곁으로 가고자 했으나,
끝간데 모를 넓이와 도저히 닿지 못 할 아찔한 높이에 질려
그 끝자락의 한 올을 잡고 다림질만 해 드린 셈이 되었다.
언제나 그러 하듯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 지기까지
힘이 되어 주시고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합장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루거의 말



이 철 우

(동의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고승이며 선각자인 원효의 이야기는 언제나 신선하다.
인간으로도 불자로도 문화의 창조자로도 그렇다.
그리고 학승으로서도 뛰어나 당시의 불교교리를 망라한 상호
대립적인 교리를 다 받아들이는 견지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일불승(一佛乘)'의 믿음을
세상에 설과함은 물론 삶을 통해서도 더럽고 깨끗함이 둘이
아니고, 극락과 세속이 다같이 하나(染淨無二 眞俗一如)" 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주기에 현대의 불교대중화와 같은 맥락을
일찍이 보여준다. 중생을 사랑했고, 속세와 끊임없이 교류했으며
서민들의 생활 속에 살아있는 불교를 보여준다는 점은 불교를
넘어서는 선각자의 모습을 각인시킨다.
<삼매경>은 이런 원효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풀어낸다.
새삼스럽게 원효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작품속에서 녹아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힘을 북돋아주듯 세속의 욕망 앞에서 초라한 인간의
가치는 구원의 손길을 통해 재생되고 치유된다고 믿는다.
다만 연극 속에서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기이하고 신비스러우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종교가 지닌 엄숙성을
형상화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결과이다.
<삼매경>은 서사적인 구조로 원효의 일대기를 다룬다.
문헌에 토대를 둔 이야기와 허구를 교직하여 구체적인 장면으로
설정된 원작은 상당한 분량의 희곡으로 이를 공연할 경우
너무 긴 공연시간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연극적인 재미를
통해 원효를 재조명하고자 놀이성을 많이 가미하면서
근본원리나 고뇌는 서사적인 기법과 적극적인 의미의 해설자
개입으로 풀려는 원작의 내용을 살리면서 원작이 지닌 방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장면을 줄이면서
플롯을 조금 변형시켰다. 당시 귀족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의지'를 중심에 놓고 원효의 사상을 풀어낸 점과 궁극적인
무애(無碍)의 길에 접어든 원효가 가게 되는 종착지가 부모가
된다는 설정은 인간의 풍모를 아우르려는 의도인 셈이다.
결국 판단은 관객의 몫이다. 우리의 작업을 통해 원효에 대한
되새김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니길 바란다.

Blissful State of Self-forget-fulness

삼매경

ACTOR



원효 / 황창기



왕 / 손동일



자장대사, 혜공 / 박은홍



원효모, 아낙 / 정행심



요석공주, 아낙 /곽정림



원효부, 의상대사 / 구윤희

ACTOR

Blissful State of Self-forget-fulness

삼매경

ACTOR



한철 / 이지훈



파진손, 상좌 / 조일현



이손 / 신영재



장연 / 김상호

음악 / 목촌문화회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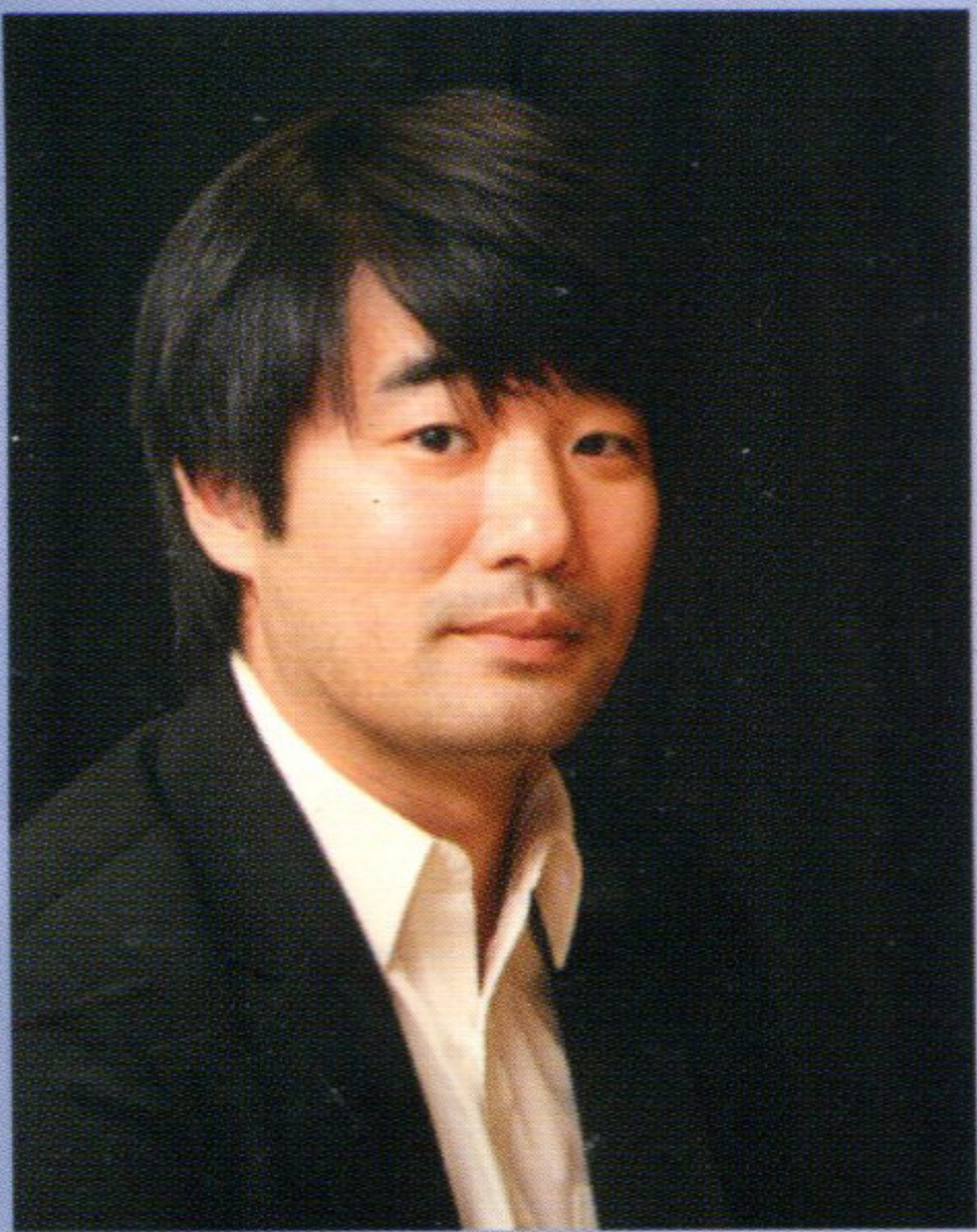
Blissful State of Self-forget-fulness

삼매경

STAFF



기획, 조연출 / 이은경



무대감독 / 최재민



안무 / 김정원



무대 / 백철호



조명 / 김철현



의상 / 하남순



무대미술 / 임훈



디자인 / 최재영



분장 / 박은주



분장 / 김보선



분장 / 심경순